

신중호's Prudent Watcher

# Risk on indicator 천정에서 둔화



Chief Strategist

신중호

02 3779 8447

jh.shi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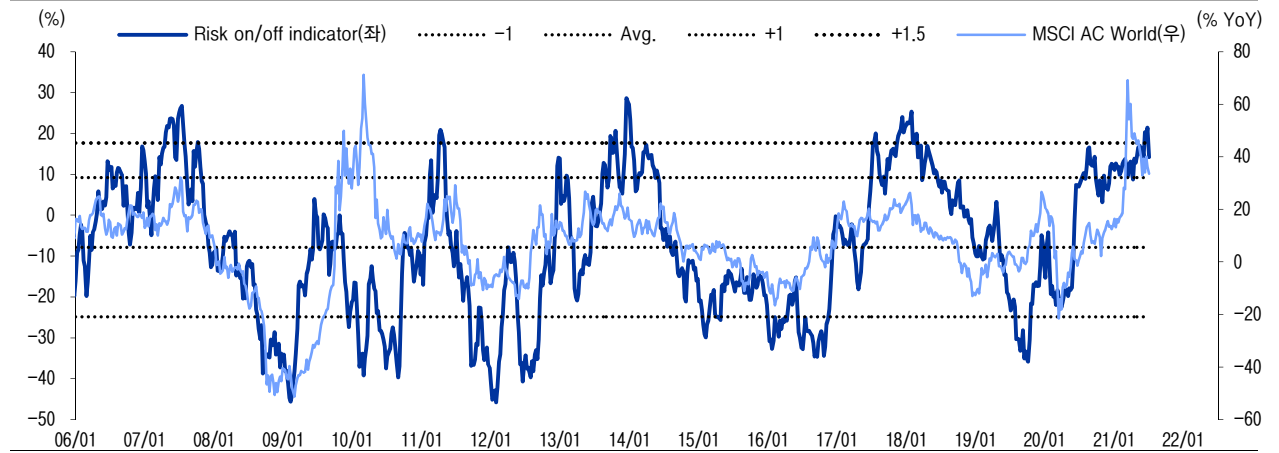
## 천정(buying power가 약해질 때)과 바닥(selling power가 약해질 때)

델타 변이, FOMC의사록, 삼성전자 가이드스 등 여러 이벤트들이 지나간 주간. 시장은 변동성을 보임.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은 주 초반 한국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케 할 수 있음. 다만, 무엇이 되었든 시장은 예민해져 있음

주요 자산의 투기적포지션으로 구성된 Risk on/off indicator(달러, 엔화, 금, 채권 투기적포지션 대비 유가, 주식, 구리, 유로화의 투기적포지션 비율) 둔화되기 시작. 동 지표의 레벨은 위험자산 베팅이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 현 시점은 위험자산 기대수익률을 높여갈 타이밍(가격 및 심리적 이격이 발생할 때까지는)이 아님을 징표. 주말사이 안정된 변동성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현 시점에서 는 과도한 위험선호는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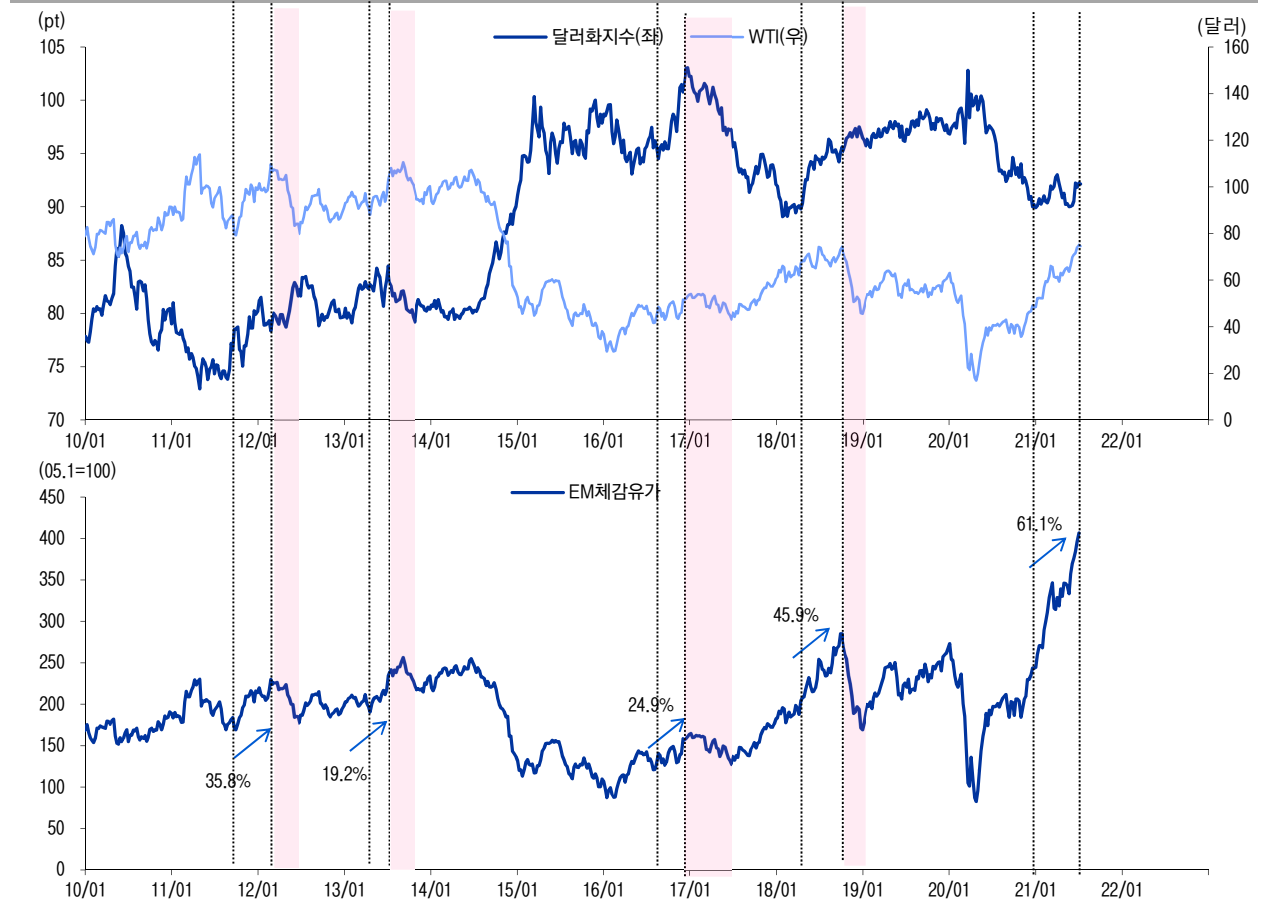
일례로 전주 변동성이 되려 OPEC+ 이후(감산유지) 유가하락에서 촉발되었던 것에 착안. 향후 유가 변동성이 자극될 경우의 자산움직임을 참고. 현재의 유가는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70달러 중반(WTI기준)을 기록. 수요보다 공급논리에 의해 고공권에서 버티고 있다는 판단. 달러화와 유가의 동반 강세 국면 이후 승자는 달러화(그림2 참고). 2013년 이후 6개월간 동행 이후 달러화와 유가의 방향이 정상화된 구간을 보면 평균 3개월간 유가는 평균 -24% 기록. 달러화 0.08%. 현재 이머징 체감 유가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60%(WTI 기준 48%)를 넘어섬. 이머징 바이파워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음

그림1 Risk appetite(위험선호)의 1.5 시그마 돌파 이후 둔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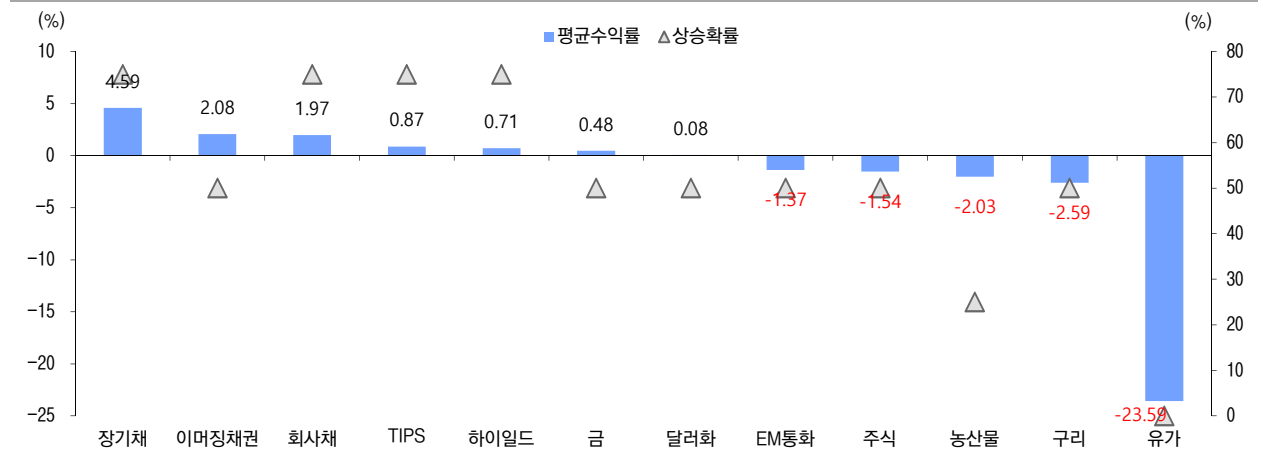
그림2 달러화와 유가의 동반상승, EM 체감유가 수준



주: EM체감유가(주요 EM 에너지순수입국 GDP가중치와 환율을 감안한 유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달러화와 유가의 동행(6 개월) 이후 주요자산 수익률(그림 2 음영구간)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